

코로나19 시대 초등학교 교사의 수업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비대면 수업을 중심으로

정영선¹ · 고유정^{2*}

¹성신여자대학교, ²고려대학교

Teaching through the Eyes of Elementary Teacher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 Phenomenological Study

Jung, Youngson¹ · Ko, Yujung^{2*}

¹Sungshin Women's University · ²Korea University

ABSTRACT: During the COVID-19 pandemic, teachers had to start their academic year teaching remotely using various online networks, which was unfamiliar to most of the teachers. The goal of the current study was to qualitatively investigate elementary teachers' perceived meanings of teaching, focusing on their remote teaching experiences, as they experienced abrupt changes from in-person to remote teaching and learning. To this end, the study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five teachers in elementary schools located in three metropolitan areas and analyzed the interview data employing a phenomenological approach. The analysis resulted in 8 sub-codes under three codes, which are (1) challenges that go beyond time and location constraints; (2) collaborations among a teacher, students, parents, and peer teachers; (3) a process being complemented by in-person teaching. To improve remote instruction, learning and collaboration opportunities for in-service teachers should be provided and support system supplementing parents' roles needs to be established.

Key words: COVID-19, elementary school, remote teaching, phenomenology

I. 서론

코로나19의 대유행이 시작되었다. 금세 종식될 것 같았던 전염병은 2020년 3월 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을 앞두고도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개학을 강행하기보다 개학 연기를 선택했다. 개학은 3월 9일로 1차 연기, 23일로 2차 연기된 후 4월 6일로 3차 연기되었지만, 이는 임시적 조치일 뿐 궁극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었다. 개학 연기로 인한 교육 공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더 이상 교육과정을 연기하기 어렵다는 문

제의식 하에서 비대면 수업이 학교 현장에 도입되었다. 사상 초유의 비대면 개학이 이루어진 것이다. 비대면 개학은 학교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4월 9일부터 고등학교 3학년, 중학교 3학년을 중심으로 시작되었고, 이어서 고 1~2학년, 중 1~2학년, 초 4~6학년이 4월 16일에, 초 1~3학년이 4월 20일에 순차적으로 비대면 개학을 하여 온라인으로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다(교육부, 2020a).

이에 따라 온라인 수업이 교육 현장에 전면 도입되었고, 우리 교육계는 충분한 준비 없이 비대면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코로나19로부터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비대면 수업이 지속되었으나 학생별 학력 격

* 교신저자: 고유정, 고려대학교 4단계 BK21 교육학 교육연구단 연구교수 (E-mail: yujung96@gmail.com)

제 1 저자: 정영선, 성신여자대학교 사회교육과 조교수

<http://dx.doi.org/10.15812/ter.60.3.202109.463>

차와 돌봄 교육의 부재 등의 문제로 대면 수업에 대한 요구 또한 제기되었다. 그 결과, 확산세가 다소 주춤해진 5월 13일에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5월 20일에는 고등학교 2학년과 중학교 3학년, 초등학교 1~2학년의 등교 및 대면 수업을 추진하였다(교육부, 2020c). 초등학교는 교사의 직접적인 보살핌이 필요한 연령대이고, 비대면 개학 이후에도 긴급 돌봄에 참여한 학생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저학년부터의 대면 수업이 논의된 것이다. 이후 2021년 현재까지 거리두기 정책하에 대면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온전한 대면 수업의 진행은 어렵기에 학교 현장에서는 비대면 수업과 대면 수업이 함께 진행되고 있다.

현장 교사의 헌신적인 노력과 발달된 온라인 플랫폼 및 네트워크는 비대면 개학이라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최선을 다해 대처할 수 있도록 이끌었지만, 2020년을 살았던 교사에게 비대면 수업의 전 과정이 생경한 시간이었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특히 초등학교는 돌봄 교육의 필요성과 학생들이 비대면 수업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대면 수업의 요구가 가장 강하게 표출되었음에도,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비대면 수업을 진행해야만 했다는 점에서 교사들이 경험한 혼란과 어려움은 상당하다 할 것이다(김세기, 2020; 김혜선, 2020; 양동석, 조건상, 유은혜, 2020).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는 초등학교 교사들의 비대면 수업 경험을 탐구함으로써 그들의 관점에서 수업의 의미를 이해하고자 한다. 코로나19라는 위기 속에서 갑작스럽게 비대면 수업을 경험하게 된 교사가 비대면 수업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를 탐구하는 것은 코로나19가 교육에 끼친 변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초등학교 교사의 관점에서 2020년의 비대면 수업은 어떻게 인식되었는가? 초등학교 교사에게 비대면 수업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연구의 시작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그렇다면 비대면 수업의 의미를 어떻게 탐구할 것인가? 지금까지 많은 연구자들이 수업을 정의하고, 수업을 탐구하였다. 수업이라는 현상을 탐구하기 위하여 먼저 수업을 개념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Sünkel, 2005, pp.55-61), 비대면 수업에 대한 정의를 이 연구의 시작점으로 삼고자 한다.

Sünkel(2005)는 수업의 개념화를 위해 그 수업이 특정한 형식 및 대상을 통해 정의해야 한다는 함목적성(적합성), 학습이 주목적인 상황이어야 한다는 상황성, 일반적으로 교사와 학생의 대인관계를 의미하는 관계성

을 고려한다. 먼저 함목적성을 고려할 때, 비대면 수업은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활용’에 초점을 두고 ‘온라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여 구현되는 수업이라는 점에서 특정한 형식으로 구분된다. 또한, 비대면 수업 역시 학습자의 변화를 추구하는 ‘학습’을 목표로 하는 활동하는 점에서 학습이 주목적인 상황성으로 정의될 수 있다. 수업은 기본적으로 “학습자에게서 어떤 바람직한 행동 변화를 일으키고자 하는 의도적, 체계적, 계획적인 과정으로서, 학습자가 특정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학습자의 내적 조건 및 외적 환경을 체계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정숙경, 2000, p.26)”이다. 즉, 학습자의 변화를 위해 체계적으로 계획된 유목적적인 행위이며, 이는 비대면 수업에서도 동일하다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비대면 수업에도 학습자와 교수자의 상호작용이 포함된다. 대면 수업은 학습자와 교수자가 직접 접촉하는 상호작용이고 비대면 수업은 온라인 네트워크를 매개하여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그 상호작용에 대인관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다르지 않다. 위의 논의를 정리하면, 비대면 수업은 ‘온라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여 학습자의 변화를 추구하는 ‘학습’이 주가 되며, 학습 과정에서 학습자와 교수자의 상호작용이 전제되는 활동이라 할 것이다. 즉, 비대면 수업은 온라인 네트워크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구현되는 모습이 대면 수업과 다를 수는 있지만, 하나의 수업 형태로 정의할 수 있다.

한편, 수업의 의미를 탐구함에 있어서는 수업을 “각각의 실현된 형태나 특수한 특성으로부터 떼어서 관찰(Sünkel, 2005, p.19)”할 필요가 있다. 비대면 수업은 온라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실현된 형태나 특성이 대면 수업과는 차이를 갖지만, 비대면 수업의 의미를 탐구할 때는 그러한 형태나 특성으로부터 떨어져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비대면 수업 또한 하나의 수업 형태라는 측면에서 비대면 수업의 탐구 역시 대면 수업을 탐구하던 방식과 동일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 연구는 비대면 수업을 수업의 한 형태로 보고, 코로나19의 대유행 속에서 초등학교 교사가 경험한 비대면 수업의 의미가 무엇인지 탐구하고자 한다. 즉, 이 연구는 코로나로 인해 촉발된 부분적인, 때로는 전면적인 비대면 수업의 실행이라는 거대한 변화를 마주한 현재의 수업이 교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심층적으로 탐구하고자 한다. 교사의 경험 속에서 형성된 비대면 수업의 의미는 아직도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 팬데

믹 상황 속에서 비대면 수업의 현재뿐 아니라 이를 계기로 촉발된 비대면 수업의 미래를 함께 살펴보는 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비대면 수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19 발생 이후 초등학교 교사가 경험한 수업 맥락의 변화는 무엇인가? 둘째, 코로나19 발생 이후 초등학교 교사는 비대면 수업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II. 코로나19 상황의 비대면 수업에 관한 선행 연구

코로나라는 예상치 못한 세계적 재난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들은 빠른 속도로 관련 연구를 수행해 왔다. 이 절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의 교사의 수업 실행과 관련된 선행 연구를 살펴보고 선행 연구와의 관계 속에서 이 연구가 갖는 시사점을 정리하고자 한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비대면 수업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그 연구 초점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 첫째는 특정 교과에 초점을 두고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수업과 관련된 이슈를 탐구한 것이다. 특히 체육, 음악 등 학생들의 직접 활동과 실기가 주를 이루는 교과를 중심으로 관련 연구가 수행되었다. 체육 교과에서의 원격수업 실태를 조사하거나(김세기, 2020) 코로나로 인한 체육 교사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분석하여 비대면 수업의 개선점을 제시하였고(양동석 등, 2020; 이의재, 제성준, 윤현수, 2020), 비대면 온라인 수업과 대면 수업을 병행하는 상황에서 체육 교사인 자신의 적응 과정을 자문화기술지 방법으로 분석한 연구도 수행되었다(전세명, 2020). 음악 교과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비대면 음악 수업의 실태 및 이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분석하고, 비대면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수업 도구를 개발하거나 온라인 음악 수업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김경태, 2020; 임은정, 권수미, 2020). 이상에서 살펴본 연구들은 특정 교과에서의 비대면 수업 실태를 분석하고, 수업에 활용하기 용이한 온라인 플랫폼이나 매뉴얼의 개발과 활용 등 해당 교과의 비대면 수업 개선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 의의를 가진다.

두번째 유형은 코로나 상황 속 비대면 수업에 취약한 대상에 초점을 맞춘 연구이다. 이 유형의 연구는 특수교육대상자, 유아, 외국인 등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교육환경에서 더욱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는 집단의 경험을 탐구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특수교육 분야에서는 코로나 상황에서 진행되는 비대면 온라인 학습의 계획과 실행, 이에 대한 특수교사 및 보호자의 인식과 개선점 등을 분석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김대용, 최진혁, 2020; 신서영, 박창언, 2020; 윤태성, 류수연, 임경원, 2020). 유아 교육 분야에서는 유아를 대상으로 진행된 비대면 수업의 현실과 개선점을 도출하였고(김민정, 김희영, 김남연, 문가영, 2020), 어린이집 교사들이 경험하는 일상과 정서적 변화를 탐구하기도 하였다(최예린, 2020). 한편, 외국인 학생은 언어의 한계로 인하여 학습 과정에서 다양한 상호작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대면 수업 환경 속에서 이들의 학습 경험을 탐구한 연구도 수행되었다. 외국인 대학생은 언어의 한계가 있기는 하였지만, 상호작용의 촉진과 즉각적인 피드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비대면 온라인 수업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현주, 2020). 비대면 교육 취약 계층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공통적으로 교수자와 학습자,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 문제를 제기하고, 수업을 위한 플랫폼과 콘텐츠 등의 개발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번째 유형은 특정 교과나 학습자 집단이 아닌 초·중·고 학교급의 일반적인 수업 행위를 중심으로 한 연구이다. 이 유형의 연구에서는 초·중·고 교사의 비대면 온라인 수업 경험을 분석하거나(김혜선, 2020; 최형미, 이동국, 2020) 비대면 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콘텐츠나 교수학습 방법을 제시하고(이지혜, 2020), 다양한 비대면 온라인 수업 사례를 분석하여 학습자 특성 고려의 필요성과 다양한 플랫폼의 병행 활용, 교사 역량 강화 및 지원 필요 등의 개선점을 제시하였다(도재우, 김수진, 문제웅, 2020). 이 연구들에서는 비대면 수업이라는 교육환경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수업의 문제를 확인하였는데, 예를 들면 교육 현장과 소통이 부족한 채 비대면 수업 관련 정책이 개발되는 점, 교사와 학부모 등 교육 당사자 간의 비대면 수업에 관한 인식 차이, 비대면 온라인 수업의 설계 및 실행 과정의 문제, 학습자의 상이한 학습 환경에서 비롯된 학업 결손 등이 확인되었다(김혜선, 2020; 최형미, 이동국, 2020).

네번째 유형은 고등교육 현장에서의 비대면 수업을 중심으로 탐구한 연구이다. 이 유형의 연구는 실험 또는 실습이 추가 되는 전공과목을 중심으로 비대면 수업의 실태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거나(김선영, 2020;

이상민, 2020; 장원형, 최민지, 홍훈기, 2020) 일반적인 측면에서 비대면 온라인 수업의 만족도와 개선 방향을 분석한 연구(이현수, 2020)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비대면 환경에서의 실험, 실습 수업과 관련해서는 미술 교과의 비대면 실기 활동 수업을 위한 아이디어(김선영, 2020)와 예비 초등교사 대상의 온라인 미술교육 사례 제시(이상민, 2020), 교수자와 대학생이 경험한 비대면 실험 수업을 탐구하여 초중고 학교급 실험 수업 운영에의 시사점 도출(장원형 등, 2020) 등 비대면 수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비대면 수업의 만족도 및 개선 방향과 관련해서는 동영상 활용 온라인 수업에서 교수자의 사전 준비 및 학생과의 배려와 소통에 따라 만족도가 달라짐을 확인함으로써 비대면 수업과 관련된 학생 만족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이현수, 2020).

이상에서 살펴본 연구들은 비대면 온라인 수업의 현황을 분석하고 추후 비대면 수업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코로나 시대의 비대면 온라인 수업을 하는 교사의 경험을 탐구하고자 하는 이 연구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을 가진다.

첫째, 다수의 연구들이 코로나 상황에 직면한 각 학교급의 교과 수업을 중심으로 비대면 온라인 수업의 현황과 실태에 초점을 두고, 코로나19 상황에서의 교사가 경험한 수업을 서술적으로 분석하고 있다(김세기, 2020; 김혜선, 2020; 이의재 등, 2020; 임은정, 권수미, 2020; 최형미, 이동국, 2020). 그러나 이 연구는 수업 경험의 현황 분석이나 실태 서술에 그치지 않고,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사가 비대면 수업을 ‘무엇으로 경험’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교사의 관점에서 수업 자체의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둘째, 선행 연구는 비대면 온라인 수업의 실행과 한계를 분석하여 앞으로의 개선 방향을 제안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김세기(2020), 도재우 등(2020), 전세명(2020)의 연구를 살펴보면 비대면 수업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이나 콘텐츠의 개발과 매뉴얼 마련 등과 같은 정책적 지원을 강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이 연구는 미래의 정책적인 측면에서 비대면 온라인 수업을 위한 개선 방향을 논하는 데 초점을 두기보다 현재의 비대면 수업에 초점을 두고 지금의 비대면 수업이 교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현재 진행으로 형성되어 가는 중인 수업의 의미’를 분석한다는 차별점을 가진다.

셋째, 현재 수행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질적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코로나19 발생 후 진행된 수업이 갖는 문제점을 비판 또는 제도적 개선점을 정리한 연구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초중고 학교급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은 물론, 대학생, 유아 등 다양한 교육대상자의 경험을 질적으로 분석(김민정 등, 2020; 김혜선, 2020; 장원형 등, 2020; 전세명, 2020)하여 문제점과 개선점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연구는 비판이나 개선에 국한되지 않고 ‘비대면 수업 자체’의 의미를 수도권 지역 초등교사의 관점으로 이해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차별점은 동시에 이 연구의 의의이기도 하다. 이 연구는 첫째,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교육 현장과 수업 맥락의 변화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둘째, 코로나19 발생 이후 비대면 수업의 전면적 도입으로 교사가 인식하는 수업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분석할 것이다. 이를 통해 셋째, 궁극적으로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의 교육, 즉,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Ⅲ. 연구설계

1. 연구참여자와 자료 수집

연구참여자는 초등학교 교사 5명이다. 연구참여자의 모집은 ‘코로나 시대에 교육 현장에서 비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한 초등학교 교사’라는 구체적인 조건에 부합하면서도 3시간 여의 심층 면담에 적극적으로 임할 의사가 있는 참여자를 찾기 위하여 임의 표집에 따라 이루어졌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발생함으로써 수도권 지역 학교들이 더 큰 영향을 받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서울, 경기, 인천 지역 학교의 교원으로 한정하였다. 또한 학교에서 배우는 대부분의 과목을 한 명의 학급교사가 담당하는 초등학교의 특수성과 중고등학교급에 비해 학업보다는 돌봄의 측면이 중요시되는 측면을 고려하여 초등학교 재직 교사로 연구 대상을 초점화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선정에 위하여 조건에 부합하는 대상자에게 먼저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 방법과 면담 진행 과정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 의사를 밝힌 경우에만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최종적인 연구참여자와의 면

답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줌(Zoom)을 활용한 실시간 면담으로 진행하였다. 연구참여자의 구체적인 정보 및 면담 일정은 다음 <표 1>과 같으며, 정보 보호를 위하여 연구참여자 이름은 이니셜로 표기하였다.

면담을 진행하기 전, 연구자 간의 협의를 거쳐 반구조화된 질문 목록을 구성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코로나 19 전과 후의 수업 경험을 구분하고, 각각 세부적인 추가 질문을 덧붙여 나가며 상세화하였다. 예를 들면, 코로나 19 이후의 수업 경험에 대한 질문 목록에는 ‘코로나19가 교사인 연구참여자 자신, 학생이나 수업 전반에 어떤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나?’,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수업을 할 때 중점을 둔 사항은 무엇인가?’, ‘비대면 수업의 양상을 설명한다면?’ 등의 상세 질문이 포함되었다. 다만, 연구참여자의 경험을 참여자의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이 연구의 목적을 고려하여 질문 목록은 면담에서 참고용으로 활용하고, 면담 과정에서 개별 연구참여자의 면담 진행에 따라 준비한 질문을 생략하거나 새로운 질문을 추가하는 등 질문 목록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2. 연구 방법 및 분석 과정

이 연구는 코로나 시대에 수업을 해 온 초등학교 교사들의 경험을 분석하여 이들의 관점에서 코로나 시대 수업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교사를 연구참여자로 하여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고, 면담 자료를 현상학적 연구 방법으로 분석하여 이들이 경험한 수업의 의미가 무엇인지 도출하였다.

현상학적 연구는 경험을 한 당사자의 관점에서 그 경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석하고 드러내주는 연구 방법이다. 이를 위해 유사한 현상에 대해 경험한 개인들의 “체험적 의미를 기술”(Creswell, 2010, p.91)하고, 개인의 경험들을 관통하는 “체험의 본질을 포착해 텍스트로 표

현”(van Manen, 1994, p.57)한다. Moustakas(1994)는 현상학적 연구에서 연구참여자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기 위해 ‘판단중지(epoche)’를 강조하는데, 이는 경험의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경험과 관점이 간섭하여 그 의미를 왜곡하는 것을 지양하기 위함이다.

연구자들은 연구를 수행하는 전 과정에서 이 부분에 초점을 두었다. 연구자들이 다른 학교급에서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수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으므로, 그러한 경험이 면담의 과정 및 면담 자료의 해석 과정에 반영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이었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Moustakas(1994)가 제시한 분석 단계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을 진행하였다. 먼저 연구자의 비대면 수업 경험이 연구참여자의 경험을 왜곡하지 않도록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비대면 수업에 대한 경험과 선입견을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전사한 면담 자료를 반복해서 읽는 과정에서 수업 경험과 관련된 의미있는 진술을 확인하여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확인한 진술 속에 드러난 경험의 의미를 범주화하여 개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표 2>에서 연구참여자인 B교사의 면담 자료를 의미단위로 분석하면서 경험을 범주화하고 개념화하는 예시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삼각구도법을 적용하였다. 먼저, 면담 전 연구자 2인이 논의를 거쳐 반구조화된 면담 질문을 구성하였다. 둘째, 판단중지를 위해 비대면 수업에 대한 연구자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선입견을 함께 정리하였다. 셋째, 면담 내용에 대한 분석은 연구자 간 각자 수행한 후, 이를 상호 교차하여 확인하고, 해석이 상이한 경우 논의 과정을 통해 해석상의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였다. 넷째, 연구참여자의 경험에 대한 해석을 연구참여자 본인에게 확인하여, 연구자의 자의적인 해석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해석상의 타당성과 신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1> 연구참여자 기본 정보 및 면담 일정

이름	성별	경력	지역	면담 일정
J교사	남	약 10년	경기	2020년 11월 30일
S교사	남	약 15년	인천	2020년 12월 2일
B교사	여	약 5년	경기	2020년 12월 7일
K교사	남	약 22년	서울	2020년 12월 11일
C교사	여	약 6년	서울	2020년 12월 18일

〈표 2〉 면담 자료 범주화 예시 과정(B교사)

면담 자료	핵심 개념	하위 범주	상위 범주
“영상을 올리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정말 직접 클릭하면서 할 수 있도록 ppt를 올려볼까도 했다가. 그럼 ppt가 깔려있지 않은 친구들은 어려움이 있어서 구글 프레젠테이션으로 올려보자 했는데 그거는 아이들한테 반응이 좋았던 것 같고요. 그냥 수동적으로 보고 있는 것보다 아이들이 그래도 조금이나마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던 것 같고.”	• 직접 클릭 • 학생 반응 • 능동 참여	학생과 수업: 참여 촉진과 의견 수렴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수업	교사-학생-학부모-동료교사가 함께 형성하는 협업
“물론 (학부모가) 화면상에 등장하실 때는 식은땀 날 정도로 부담스럽긴 한데. 아무래도 그렇게 관리를 받고 있는 학생들이 열심히 참여하기는 해요. 과제 제출도 그렇고.”	• 학부모 등장 • 부담 • 관리 받는 학생 • 참여 열심히 • 과제 제출	학부모와 수업: 숨은 수업 참여자로서 영향력 행사	
“그냥 하고 싶은 과목으로 말아서 나눴고. 그래서 주지교과 맡으신 선생님들은 한 과목씩 하시고, 예체능 교과 맡으신 분들은 뭐 2~3 과목씩 맡아서 하고 계시고 그러고 있습니다.”	• 교사 간 수업 분배 • 원하는 과목 분배 • 교과 간 분량 차이	동료 교사와 수업: 교과 수업 분담 및 수업 운영에의 협력 공동체	

IV. 분석 결과

1. 초등학교 교사가 경험한 수업 맥락의 변화

가. 코로나19 대유행의 시작, 위기가 도래하다

코로나19의 발생은 교육 현장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온라인 네트워크를 활용한 비대면 수업의 실행이 그것이다. 교육공학의 발달로 온라인 환경에서 교수학습 활동을 하는 것 자체는 새로운 것이 아니었지만, 공교육 과정에서 비대면 수업의 전면적인 적용은 학생은 물론 교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초등학교 교사에게 비대면 수업은 처음 경험하는 미지의 존재와 같았다. 교사들은 비대면 수업을 ‘준비’하는 일조차 버거워했다. 비대면 수업을 어떠한 방식으로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부재한 가운데 교사들은 매일 달라지는 팬데믹 상황의 변화에 따라 그날의 문제에 대처하는 데 급급할 수 밖에 없었다. 모두가 처음 경험하는 위기였고, 누구도 해답을 알지 못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터널 속,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어둠 속으로 아무 준비도 하지 못한 채 던져졌지만, 도움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교사들은 학생들을 이끌고 터널을 지나쳐야 했다.

코로나19는 정형화되어 있던 기존의 대면 수업을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교사와 학생이 함께 하는 즉시적 수업은 상황의 변화에 따라 달라져야 했다. 교사에게는 상당한 ‘자율성’이 부여되었

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긍정적으로 여겨졌을 ‘자율성’은 어두운 터널 속에서 생존해야 하는 교사들에게 ‘무질서’와 같았다.

이런 일이 벌어질 거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갔고요. (중략) 그러니까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도 않았던, 그냥 손 깨끗이 씻어라 정도의 급식지도를 했다면 지금은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이잖아요. 모든 것들이 다. 1부터 100까지 다 전혀 새롭게 했기 때문에. 결론만 말씀드리면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너무 많아서...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은 정말 무용지물이었고, 그리고 실제로 벌어진 현장은... 마찬가지로 단 한 번도 예측하거나 준비해본 적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혼란스러웠죠. 굉장히. 교육과정도 열 번 이상 바꿨고요. 그랬죠. (S교사, 2020년 12월 2일 면담)

나. 팬데믹의 지속, 장기전에 돌입하다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다는 초반의 기대는 점차 사라졌다. 모두가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일상으로 복귀하기를 기대하지만 누구도 종식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교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코로나를 장기전의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비대면 수업의 상황을 견뎌나가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교사들 간에 학교 운영 방식을 협의하고, 효율적인 비대면 수업을 위한 의사결정을 하였다.

코로나19의 장기화 속 효율적 수업의 대안으로 정해

진 시간에 학생들과 온라인상에서 함께 수업하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부상했다. 실시간 쌍방향 수업은 코로나19 발생 초반의 비대면 녹화 수업과 비교할 때, 교사와 학생이 동시간에 온라인 공간에서 함께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실시간 쌍방향 수업은 코로나19 발생으로 대면 수업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되도록 이전의 수업 모습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회적 열망이 반영된 결과였다. 교사들은 실시간 수업을 빠르게 받아들였다.

처음 3, 4월에만 해도 그냥 제발 온라인 학습 어떻게든 해달라 이거였는데, 지금은 실시간을 안 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고 지침이 내려올 정도가... 불과 4월달이었는데 지금 11월인데 거의 6~7개월 만에 완전히 실시간 체제로 돌아간다는 거에 사실 저는 되게... 교사가 몇 만 명인데 그거를 이렇게 빨리 돌릴 수 있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닌데. (J교사, 2020년 11월 30일 면담)

이와 같은 수업의 변화는 장기전 양상으로 전개되었고, 교사들은 장기전에서 살아남기 위해 다양한 준비를 하였다. 이들은 온라인 네트워크의 활용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대한 탐색을 하고, 관련 서적을 구매하며, 특강을 듣는 등 비대면 수업을 의미있는 '새로운 무언가'로 만들어 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1학기에는) 저희가 좀 수업을 체계적으로 시작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었는데, 여름방학 때 선생님들 대상으로 강의를 해주시고 연수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미리 좀 본인 학급방 만들고 여러 가지 기능 탐색도 하고 하면서 준비기간을 거친 다음에 2학기 때부터 실시를 하게 됐습니다. (C교사, 2020년 12월 18일 면담)

예스24라든지 아니면 교원원격연수 회사에서 다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는 책과 연수가 뭘냐면 다 이 쌍방향 수업에 대한,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수요가 많아지고 교사들도 굉장히 더 많이 연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K교사, 2020년 12월 11일 면담)

그러나 장기전을 겪는 교사를 향한 비난의 시선도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새로운 유형의 비대면 수업을 하는 교사들을 응원하였지만, 일부에서는 학생이 없는 학교에서 교사들이 무슨 할 일이 있는지 의심 섞인 시선으로 교사들을 바라보았다. 비대면 수업과 관련한 정당한 비판은 교사들이 온라인 수업을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는 동기가 될

수 있으나,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기반으로 한 무조건적인 비난은 교사들의 노력을 폄하하고 견디고자 하는 의지를 약하게 하였다.

외부에서 볼 때는 애들이 안 오니까 일이 줄은 것처럼 보이나 봐요. 근데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 1.5배? 2배? 됐거든요. 이전에는 제가 이렇게까지 늦게 퇴근한 적이 없는 데, 올해는 정말 막... 6시 반? 7시 막 이때 퇴근하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옆에 2반, 3반 다 그때까지 불이 켜져 있고 그런 거예요. 왜냐면 막 영상 찍고, 찍다가 잘못되면 다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제가 녹화를 두 번 했거든요. 왜냐면 찍고 나서 확인을 해보니까 소리가 안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찍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가 인풋을 많이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학교 외부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애들 안보니까 완전 날로 먹네? 이런 반응들이 있어서 그건 좀 속상했었거든요. (C교사, 2020년 12월 18일 면담)

교사들이 겪고 있는 코로나19 발생의 전지 상황은 현재 진행 중이다. 장기전은 아직 끝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끝은 있을 것이다. 언젠가 코로나19가 종식되어 팬데믹 상황이 마무리된 후에 교사들이 경험한 비대면 수업은 우리의 교육을 어디로 이끌 것인가? 이 연구에서는 먼저, 치열한 전쟁의 상황 속에서 교사들이 직접 경험한 비대면 교육의 의미를 그들의 관점에서 이해함으로써 미래의 교육을 위한 한 발을 내딛고자 한다. 초등학교 교사들에게 비대면 수업은 어떤 의미인가?

2. 초등학교 교사가 경험한 비대면 수업의 의미

이러한 수업 맥락의 변화 속에서 초등학교 교사들이 경험한 비대면 수업의 의미는 무엇인가? 연구참여자의 면담을 분석하여, 이들이 비대면 수업에 부여한 의미를 8개의 하위 개념과 3개의 상위 개념으로 구조화하였다. 상위 개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초등학교 교사는 비대면 수업을 첫째, 정해진 시간과 공간에서 이루어지던 수업의 경계를 초월하게 하는 도전이고, 둘째, 교사와 학생은 물론 학부모, 동료 교사와의 함께 만들어가는 협업이며, 셋째, 아직 비대면 수업만으로 온전하기보다 대면 수업과의 역할 분담을 통해 보완해 나가야 하는 과정으로 경험하였다. 즉, 교사들에게 비대면 수업은 하나의 도전이며, 협업이고, 미완성의 과정이라는 의미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 시공간의 물리적 경계를 초월하게 하는 도전

1) 교사의 교수와 학생의 학습 분리

비대면 수업은 녹화 수업 또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 중 어느 형태로 진행되는지와 관계없이, 교사의 교수와 학생의 학습이 분리되어 수행되는 것이 기본이다. 물리적으로 동일한 공간에 위치하지 않고 온라인 네트워크로 연결된 가상의 수업 공간에서 직접적인 접촉이 배제된 학습을 한다. 이와 같은 교사와 학생의 분리는 비대면 수업에 몇 가지 특징을 부여했다. 먼저, 수업에 참여하기 위한 진입장벽의 존재였다. 대면 수업은 학생이 학교 교실로 걸어 들어오면 참여가 가능하지만, 비대면 수업은 수업 참여 전 몇 단계의 장벽을 넘어야 했다. 비대면 수업을 위한 기기가 필요하고, 기기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에 들어와 수업에 접속해야 했다. 이 장벽들을 넘지 못하면 학생이 수업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각 단계별로 상세한 지도를 하였다.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처음 시작할 시기) 가정통신문이나 아니면 학급 SNS 등, 학급별 소통망을 통해서 좀 수업을 한다는 거를 공지를 했고, 가정에서 미리 연습해보고 준비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기기가 없는 가정을 대상으로는 저희 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스마트패드를 대여해줘서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 데 지장이 없도록 했습니다. 물론 초반에는 이제 좀... 못 들어오는 아이들도 있었는데 그렇게 어려워하는 학생들은 좀 시작할 때쯤에 몇 번 학교를 와서 좀 선생님이 봐줬어요. 좀 이거 클릭하는 거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고 발표할 때는, 음소거할 때는 요거 누르는 거고, 비디오 시작은 이렇게 하는 거고, 배경이 싫으면 가상 배경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런 기본적인 거 알려주니까 다음에는 잘 하더라고요. (C교사, 2020년 12월 18일 면담)

또한 공간의 분리는 화면 속 학생들이 학습 과정에서 소외되는 것을 교사가 확인하기 어렵게 하였다.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대면 수업의 경우, 전방에서 일어난 채로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는 앉아있는 교실 안 학생의 모습을 쉽게 눈에 담을 수 있었다. 반면 비대면 수업에서는 한 컴퓨터 모니터 속 작은 창에 학생들의 얼굴이 작게 담겨 있으며, 학생 수가 일정 인원을 넘는 경우 한 화면으로 파악하기 어려웠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눈을 바라보기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지 확인하지 못하였다.

26명 되면 결정적으로 좀이 참가자가 화면이 두 장으로 넘어갑니다. 제가 이거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너 뭐해 너 뭐해 할 수는 없잖아요. (S교사, 2020년 12월 2일 면담)

물론 비대면 수업에 잘 적응하고 참여하는 학생도 많다. 그러나 문제는 뒤처지는 아이들이다. 교사들은 화면 속 학생들의 생기없는 표정과 눈빛에 무력감을 느끼지만, 직접 대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학습 소외 및 학생 간 학력 격차에 대처하기는 더욱 힘들다고 토로하였다.

뿐만 아니라 교사들은 학생들의 활동이 중심이 되는 초등 수업의 특성은 비대면 환경에서 구현할 수 없다고 느꼈다. 기존 대면 수업 때는 자주 진행했던 협동학습을 포기해야 했고, 교수자 주도의 강의식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느껴 고민이 깊어졌다.

협동학습을 전혀 하지 못하고요. 그냥 강의식 수업을, 전통적인 강의식 수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할 수 있나에 대한 고민이 주로 많았죠. 여기 교실에서 학생들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는 '배움의 장을 마련한다'고 표현하거든요. 장을 깔아주면 애들이 거기서 활동하면서 '아 오늘 이거 배웠구나. 하고 나니까 이걸 알게 됐구나.' 약간 이런 식의 수업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다면, 여기서는 그런 건 이제 불가능하죠. (S교사, 2020년 12월 2일 면담)

2) 언제나 어디서나 가능한 수업, 그리고 이면의 어두움

교사의 교수와 학생의 학습 공간의 분리는 수업을 자유롭게 만들어 주었다. 학생들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었다. 온라인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지만 한다면, 학생들은 어디에서든지 수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비대면 수업 중 실시간 쌍방향 수업은 정해진 시간에 접속이라는 제약 조건이 있었지만, 녹화 수업의 경우에는 시간의 경계마저도 극복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수업이 가능하였다. 학생들은 아파서 실시간 수업 참석이 어려웠어도 이후 수업 녹화본을 통해 학습 결손을 줄일 수 있었다.

또한 교사는 온라인 네트워크로 연결된 수업 공간에서 학생들이 수업 영상을 언제, 어느 정도 시청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예전 대면 수업 때는 학생들의 학습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온라인 학습 플랫폼을 사용하면서 학습현황을 정확하게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비대면 수업의 장점으로 여겼다. 제출한 학

습과제 역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었고, 그에 대한 피드백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제공이 가능하였다.

(e학생터는) 이렇게 들어와서 애들 학습현황을 누르면 이렇게 몇 분 봤고 학습일 몇 일이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애들이 몇 분 학습했는지 딱 보여요. (J교사, 2020년 11월 30일 면담)

그러나 비대면 수업의 긍정적인 측면과는 대조적으로 대면 수업에서 의미를 가지는 조건들, 즉 수업 참여나 출결 확인 등에서 기준이 모호해지는 것이 새로운 문제로 지적되었다. 학생들은 캠핑장에 가서 또는 집 안을 돌아다니면서 수업에 참여하는 등 예전과는 다른 수업 참여의 모습을 보였다. 이를 보며 교사들은 처음에는 올바른 수업 태도라고 생각했으나 곧 사고를 바꿔 자유스러운 수업 태도를 보이더라도 비대면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의지를 칭찬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시간 수업에서 온라인 네트워크 접속만 유지한 상태로 다른 활동을 한다면, 이는 수업에 참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실시간 수업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 과제는 완료했다면 출석으로 인정되는 것인가? 교사들은 뚜렷한 답을 내기 어려운 문제라고 보았다.

고학년은 특히나 더 유튜브 보고 한쪽에만 좀 하고, 요 쪽에다가 유튜브 하고 여기다가 무선 이어폰 꽂아 놓고 유튜브 보고 있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런 애들이 많아요. 좀 수업 딱 시작하면은 머리를 요렇게(천장을 비추는 동작) 하고. (K교사, 2020년 12월 11일 면담)

저희 학년에서도 얘기가 나온 건데 출결이 너무 애매모호하다. 어디까지 해야 출석을 인정을 해주고 어디까지가 결석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냐. 근데 학교에서는 뚜렷한 방침을 내놓지 않고, 심지어 교육청에서도 그런 방침이 없기 때문에 6학년은 줌에 안 들어오면 무조건 결석처리를 하고 싶은데 어느 곳도 그렇게 하는 곳이 없으니까. 다른 학년도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니까. 이렇게 했다가는 또 민원이 들어올 것 같고. 뭔가 통일된 방침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안 들어왔어도 이후 수업, 위두랑 과제랑 했으면 출결 인정 이렇게. (B교사, 2020년 12월 7일 면담)

3) 새로운 이슈: 수업의 저작권과 교사의 인권

대면 수업이 교실이라는 물리적 공간 안에서 즉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종료되는데 반해, 비대면 수업은 온라인

인상에서 기록과 저장이 가능하다. 이는 학생들이 제작된 수업을 ‘소유’하거나 ‘재사용’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내포한다. 이와 같은 변화는 수업의 저작권과 교사의 인권 문제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수업을 바라봐야 하는 필요성을 야기하였다. 수업은 한편으로는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재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교사의 지적재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교사의 동의없이 학생을 제외한 이들에게 수업이 공개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수업의 저작권 및 교사의 인권 문제를 설명하고 이를 방지하고자 관련된 별도의 수업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교사들 사이에 이에 대한 우려는 남아있었다. 교사가 학생이나 학부모를 상대로 자신의 수업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불법인데 그렇다고 학생 학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거는 건 또 금기시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통으로 떼서 학원으로 애가 가져가면은 학원 강사들이 내신 준비한답시고 그거를 다 분석해주는 거예요. 현실입니다. (S교사, 2020년 12월 2일 면담)

수업에 대한 공개와 평가 외에도, 교사의 얼굴 등 개인적인 정보의 유출에 대해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대면 수업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녹화하거나 사진을 찍는 일은 흔치 않으며, 그러한 행위가 쉽게 눈에 띈다는 점에서 교사가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비대면 수업에서는 교사와 학생이 분리된 상황으로 인해 교사는 학생이 교사의 수업 장면을 촬영하여 기록하는 일을 확인할 수 없었다. 교사의 동의없이 저장된 수업이나 교사의 얼굴과 같은 개인정보가 온라인 네트워크상에서 전송 및 공유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좀 수업 같은 경우에는 2학기 되면서 (선생님들께) 웹캠도 다 구해드렸고, 이제 각자 해보자. (중략)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수업을 하자라고 했을 때 선생님들의 반대가 ‘학부모들이 우리 수업 다 보고 있다, 얼굴 공개된다, 서버 해킹당해서 이런 음란물이 나올 수 있다.’ 뭐 반대 사유가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S교사, 2020년 12월 2일 면담)

한편, 비대면 수업이라는 맥락의 변화에 발맞추어, 수업의 기록과 공개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며 교사가 이에 적응해야 한다는 새로운 관점도 제기되었다. 수업 공개로 인해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된다고 해도 교사는

수업 전문가로서 그것을 두려워하여 숨어서는 안 된다
는 것이다. 비공개 수업에 익숙해지면서 교사가 비대면
수업 시행 초기 가졌던 수업 공개에 대한 막연한 거부
감도 점차 흐려지고, 수업이 기록되고 저장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수업이 온라인에서 다른 사람에게) 공개된다는 건 사실.
그동안 우리가 구시대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되게 신성시
되었던 어떤 영역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마치 프로스포
츠를 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공개하고 돈을 벌듯이 마땅
히 공개되어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하고요, 가르치는 일
을 하는 사람이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거가
프로 직업인으로서 굉장히 부끄러운 상황이라고 저는 생
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물론 제 말에 동의 안 하시
는 분들도 엄청 많겠지만, 그렇게 되어야 마땅하다고 보
고요.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공개가 되
어야 마땅한 거고. (S교사, 2020년 12월 2일 면담)

나. 교사-학생-학부모-동료교사가 함께 형성하는 협업

1) 학생과 수업: 참여 촉진과 의견 수렴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수업

대면 수업에서나 비대면 수업에서나 수업의 가장 중
요한 두 주체는 교사와 학생이라 할 것이다. 비대면 수
업에서는 대면 수업과 달리 학생들의 직접 참여가 제한
적이라는 점은 수업의 큰 제약이었다. 교사들은 특히
언어적 설명보다 체험적 활동이 효과적인 초등학교 저
학년의 수업에 대해 우려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의 현
실을 받아들인 교사들은 비대면 수업의 질을 높이는데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며 비대면 온라인 수업에 적합하
도록 수업을 재구성하였다. 학생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
는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면서, 비대면이지만 학생이 참
여할 수 있는 활동을 추가하고자 노력하였다.

영상을 올리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정말 직접 클릭하면
서 할 수 있도록 ppt를 올려볼까도 했다가, 그럼 ppt가
잘려있지 않은 친구들은 어려움이 있어서 구글 프레젠테이션으로 올려보자 했는데 그거는 아이들한테 반응이
좋았던 것 같고요. 그냥 수동적으로 보고 있는 것보다
아이들이 그래도 조금이나마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
었던 것 같고. 또 그 밖에도 다양한 교육 자료들, 예를
들면 라이브시트 이런 것도 써보고. (중략) 조금 도구를
다양화했더니 그래도 1학기 때보다는 더 아이들이 참여
하는 것 같습니다. (B교사, 2020년 12월 7일 면담)

또한 개별적인 피드백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적극적
인 수업 참여를 유도하였다. 대면 수업에서 학생들은
수업 내용을 따라가지 못하거나 궁금한 사항을 질문으
로 해소할 수 있다. 그러나 발표에 적극적이지 못한 학
생들은 수업 시간 내 질문하기가 어려워 이를 포기하기
쉽다. 온라인 수업에서는 채팅을 통해 비공개적으로 교
사에게 질문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업성취도가 낮
은 학생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교사들은 이를 코로나로 인한 교육의 긍정
적 측면으로 보았다.

같은 내용을 주더라도 아이들이 그... 어떤 학생은 좀 이
해력이 좋아가지고 잘 이해를 하는데 어떤 학생은 못따
라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면 답을 못쓰고 생각만 하고 있는 애들이 보여요. 그
럼 개별적으로 제가 중간에 채팅창으로 비공개로 힌트
를 주기도 하고 해서 그런 점이 좋더라고요, 저는. 좀
같은 경우에는 '비공개로 그 학생한테만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점이 되게 좋아요. 왜냐면 못하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교실에서 피드백을 해주면 가서 '이거 이거야'
라고 알려주면 좀 창피해하는 경우가 있어서. 부끄러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줌으로 제가 피드백을 해주니까 다
른 아이들은 모르는 상황에서 힌트를 주니까 편하게 수
업을 하더라고요. (C교사, 2020년 12월 18일 면담)

무엇보다 교사들은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수업
의 주체인 학생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였다. 학생에게
온라인 수업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설문을 실시하거나
상담을 진행하였고, 제기된 요구 사항은 최대한 수업에
반영하여 수업의 만족도를 높이하고자 하였다. 즉, 보다
학생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학생들과 함께 만들어 나
가는 수업을 진행하고자 노력하였다.

2학기 때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또 쌍방향 수업이 들
어오면서 그때는 설문을 좀 주기적으로 했어요. 어떤 수
업으로 진행하면 좋겠는지, 쌍방향에선 어떤 과목을 했
으면 좋겠는지, 건의사항 같은 것도 물어봤었고요. (B교
사, 2020년 12월 7일 면담)

2) 학부모와 수업: 숨은 수업 참여자로서 영향력 행사

비대면 수업에서 교사와 학생 이외에 또 하나의 중
요한 주체는 학부모이다. 초등학교의 학습에서 학부모
의 역할이 강조된 것은 비대면 온라인 수업에서만 해당
하는 것은 아니다. 대면 수업에서도 학부모가 직·간접적

으로 학습 측면에서 지원을 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면 수업 환경에서는 학부모가 자녀인 학생의 관점에서 해석된 수업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학습에 관여해 왔다면, 비대면 온라인 수업에서는 학부모가 학생과 함께 직접 수업에 참여하며 수업과 관련한 의사를 표명하였다. 즉, 학부모는 학생 뒤에 숨어 있는 또 하나의 수업 참여자였다.

엄마가 그 의사... 그 옆에 있는 거죠. 요렇게 있으면서 몰래... 보이지 않는 데 있는데 자꾸 애네들이 수업하는데 자꾸 봐요, 옆을. 그러면서 이제 소리 켜면 ‘엄마 뭐라고?’ 이런 얘기도 들리고. 그 다음에 ‘빨리 발표해! 손들어!’ 엄마가 자꾸 손 안 든다고... (K교사, 2020년 12월 11일 면담)

(실시간 쌍방향 수업에서 카메라 켜는 것에 관하여) 그래서 잔소리가 되게 많이 들려요. 부모님께서 옆에서...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간섭하시는 소리가 엄청 잘 들려요. (B교사, 2020년 12월 7일 면담)

한편, 이처럼 학부모 역할이 갖는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학부모’와 함께하는 학생과 ‘지원이 어려운 학부모’로 인해 독립적으로 온라인 수업에 임해야 하는 학생 사이의 학업 격차 문제가 대두되기도 하였다. 교사들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학부모’의 자녀의 학업성취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나, ‘지원이 어려운 학부모’의 자녀의 학업성취도는 온라인 수업 환경에서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물론 (학부모가) 화면상에 등장하실 때는 식은땀 날 정도로 부담스럽긴 한데, 아무래도 그렇게 관리를 받고 있는 학생들이 열심히 참여하기는 해요. 과제 제출도 그렇고. 학교에 왔을 때 교과서를 보아도 그런 아이들이 확실히 꼼꼼히 잘 되어 있고, 제출하라고 하면 제때제때 잘 제출하고, 확실히 그런 아이들, 관리를 받고 있는 학생들이 도태되지 않고 잘 따라오고 있는 느낌이 들고. 어머니께서 자율성을 많이 많이 부여한 그런 아이들의 경우에는 좀... 따라오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은 것 같아요. (B교사, 2020년 12월 7일 면담)

‘지원이 어려운 학부모’의 자녀가 대면 학습을 할 경우, 학부모 지원의 유무는 교사의 관여와 지도에 의해 어느 정도 상쇄가 가능하다. 그러나 비대면 수업 환경에서 교사가 직접 관여하기 힘든 경우, 수업의 효과와 관련한 핵심 열쇠는 학부모의 손으로 이동한다. 그리고

교사들은 이러한 지원을 제공해주지 못하는 학부모가 그 상황을 속상해한다고 말했다.

(부모인 본인이 아이를) 못 봐줬다. 내가 애들 좀 수업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줬어야 했는데 내가 못 봐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다른 애들은 잘했다고 하고 하니까 나는 굉장히 속상하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C교사, 2020년 12월 18일 면담)

3) 동료 교사와 수업: 교과 수업 분담 및 수업 운영에의 협력 공동체

초등학교는 영어나 체육 등 특정 교과전담 교사를 제외하고는 담임교사가 한 학급 내 대부분의 수업을 전담하여 가르친다. 그러나 비대면 수업에서 녹화 수업과 실시간 쌍방향 수업의 병행이 이루어지면서, 초등학교 교사들은 특정 교과를 전담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교과 교사의 역할을 맡게 되었다. 녹화 영상을 제공하는 비대면 온라인 수업의 경우, 교과전담 교사가 있는 과목을 제외하고는 담임을 맡은 교사가 대부분의 교과에 대해 녹화 영상을 제작하지 않고, 교사들이 교과를 분담하여 나누어 맡은 후 자신이 맡은 교과의 수업을 녹화, 이를 해당 학년의 전 학급이 공유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교사들은 다른 교과를 담당하는 교사들과 적극적으로 의견을 교류하고, 조언을 구하는 등 서로 협력하는 공동체 구성원과 같은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코로나 상황에 따라) 학년 부장이 다 ‘시간표가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이거 이거 온라인 준비해주셔야 해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해 가지고, 공유폴더나 이런 게 있어요. (중략) 자율을 담당하시는 선생님은 여기다가 갖다 적으시고, 이런 식으로 공유 문서를 작성해요. 이렇게 해서 주간을 하나 만들어 내는 거예요, 다같이. 그리고 이 부분을 그 선생님이 써서 준비하시는 거, 영어 선생님이, 국어 담당하시는 선생님은 국어, 저 같은 경우는 체육 담당했으니까 체육. 이런 것들을 나눠서 담당하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까지 이렇게 작성해왔어요. (J교사, 2020년 11월 30일 면담)

이는 학급 담임을 중심으로 수업이 이루어지는 초등학교 수업에서 큰 변화라 할 것이다. 이러한 방식의 교과 분담은 교사 1명이 전 교과의 녹화 수업을 제작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효율적이며, 녹화 수업의 부담을 감소시켜 각 교과 수업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교사들은 교과 분담이

지속되면서 오히려 교사 간 의견 교류가 줄어들고 분리되는 모습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바라보았다.

약간 낯선 방식이긴 해요. 전체를 가르치던 사람이 교과를 나눠서 가르친다는 게 좀 낯선 방식이기도 하고...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가상의 어떤 공간에다가 내가 맡은 1/n만 올려놓으면 내 역할이 끝난다? 약간? 선생님들 간의 원가... 전에는 예를 들어 과학의 달 때 4월 달에 과학 한마당을 한다 그러면 모여가지고 뭐를 해보자, 뭐는 해봤는데 어땠다 뭐 이런 서로 간에 이런 이야기들이 뭘 하더라도 많이 오갔거든요. 그런 회의가 잦았는데, 지금은 역으로 그냥 마치 교과전담 교사마냥 나는 사회만 정확히 알고 잘 만들어서 올리면 내 역할이 끝난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서 부정적인 면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에는 다같이 하던 고민들을 이제는 1/n로 나눠서 그 사람이 단독으로 한다는 게 조금 저는 낯설기도 하고 부정적이기도 해요. 초등 특성상 안 맞는 부분인 것 같아요. (S교사, 2020년 12월 2일 면담)

다. 대면 수업과의 역할 분담으로 보완해 나가야 하는 과정

1) 대면 수업 고유의 가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비대면 수업이 익숙해졌지만, 그러나 동시에 교사들은 여전히 대면 수업만이 갖는 고유의 가치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먼저,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이다. 학생의 활동보다 교사의 강의를 중심으로 구성된 비대면 수업에서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고, 교사들도 이로 인한 답답함을 토로했다.

수업을 하다보니까 동영상 처음에 찍을 땐 괜찮았는데, 세상에 교사도 상호작용이 없으니까 답답해요. 왜냐면 교직 경력에 다들 있으면 상호작용 없이 교사를 한다는 게 얼마나 답답한지 알기 때문에. 애들도 그렇고. (K교사, 2020년 12월 11일 면담)

다음으로, 대면 수업으로만 파악할 수 있는 비인지적, 정서적 측면의 교육적 정보이다. 직접 접촉으로만 확인할 수 있는 학생들의 언어와 행동 양상을 관찰함으로써 교사는 학생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적절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었다. 이는 인지적 학습을 넘어선 보다 거시적인, 전인적인 교육의 역할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교사들은 특히 초등학교급에서는 학업적 측면보다 비인지적, 정서적 측면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얘기하며, 비대면 수업과 관련하여 주로 수업결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아쉬움을 표명했다.

혹시 재가 집에서는 이런 환경이지 않을까? 이런 환경이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해보는 거고, 재가 저런 말을 내뱉는데, 왜 저런 말을 내뱉을까? 부모가 분명 쓰지 않을까? 그런 거를 계속해서... 그러니까 초등이 그래서 교실에서 담임이 앉아있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아이들이 수업들이 내뱉는 말 이외에 쉬는 시간에 뱉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들을 포착해서 저 아이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채워주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좀 그런 부분들이 갈수록 저는 더 커질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학업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다가 아닌데, 너무 그런 부분들만 강조하는 부분들이 조금 아쉬워요. (J교사, 2020년 11월 30일 면담)

2) 상호 보완의 가능성 탐색: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의 공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대면 수업만으로는 충족시킬 수 없는 수업의 의미는 분명 존재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교사들은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의 수업을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이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는 이중의 구조로 보았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에서의 교육을 위한 현실적 선택이면서 동시에 코로나19 종식 이후의 미래를 위한 이상적 선택이기도 하다.

교사들은 제한적으로나마 이루어지는 대면 수업을 통해서라도 학생들이 학교를 가고 싶은 공간으로 여길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보았다. 학교가 인지적 학습만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정서적 지지에 초점을 두으로써 학생들에게 학교가 친근한 공간, 편안한 공간으로 다가와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애들도 편하게 생각해요, 온라인으로 하는 거. 학교 안 나와도 되니까. 근데 이제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학교에 몇 번 나와서 조금 재미를 붙이니 학교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조금 드는 거죠, 이제. 이제 저는 그거를 꺾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남겨가지고 학습으로... 꺾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그래요. (J교사, 2020년 11월 30일 면담)

이와 더불어 비대면 수업이 갖는 장점을 심분 활용하고자 하였다. 코로나 상황에서 비대면 수업이라는 선택지를 받아들여야 했지만,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며 대면 수업에서는 어려웠던, 비대면이기에 수업이 보다 효과적,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경험하였다.

음악에 표현 영역이 있는데 노래를 부르고 할 때 이 줄을 이용하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왜냐면 줄은 이렇게 창이 작아서 제가 한눈에 들어오잖아요. 예를 들면 리코더 수업을

할 때 누가 윤지법이 틀리는지 교실 수업할 때는 이렇게 서라운드로 봐야되니까 안 보여요. 근데 줌으로 보니까 아재 손가락 틀렸다 이게 보여가지고 교정해주는 것도 굉장히 편리했습니다. (C교사, 2020년 12월 18일 면담)

초등학교 교사에게 있어 코로나 시대의 비대면 수업 경험은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의 관계성 속에서 각 수업 형태의 장점을 반영한 이중 구조를 형성하고, 서로 상호 보완해 나가는 과정으로서의 의미를 가졌다.

V.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교사들은 충분한 준비없이 비대면 수업을 하게 되었다. 긴박하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의 변화 속에서 학생의 안전을 위해 연기되었던 개학은 온라인 네트워크를 활용한 비대면 개학이라는 새로운 시작을 가져왔다. 지금까지 교수학습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써 활용되었던 온라인 네트워크와 디지털 기기는 이제 수업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 요소가 되었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은 변화 속에서 수업의 주체 중 하나인 교사의 경험을 통해 비대면 수업의 의미가 무엇인지 탐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초등학교 교사 5명과의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고, 전사한 면담 내용을 현상학적 방법으로 분석하여 비대면 수업의 의미를 8개의 하위 범주, 3개의 상위 범주의 구조로 구성하였다.

비대면 수업의 첫번째 의미는 ‘시공간의 물리적 경계를 초월하게 하는 도전’이다.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비대면 수업은 온라인이라는 환경에서 이루어진다. 대면 수업이 교사와 학생이 함께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즉시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인데 반해, 비대면 수업은 교사와 학생을 물리적 공간에서 분리하고, 학생이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도록 학습의 맥락을 시공간의 한계 밖으로 확장하였다는 점에서 물리적 경계를 초월한 형태라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학습에의 진입장벽, 학습과정에서의 소외가 발생하였고, 기존에 진행하던 활동 중심의 협동학습은 교수자 중심의 강의식 수업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자유분방한 수업 태도, 출결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더불어 온라인 네트워크를 매개로 하는 비대면 수업은 기록과 저장에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와 관련한 저작권과 인권의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는 일종의

도전과 같은 의미를 형성하였다.

비대면 수업의 두번째 의미는 ‘교사-학생-학부모-동료 교사가 함께 형성하는 협업’이다. 비대면 수업 맥락에서 교사와 학생이 분리되면서, 하나의 수업에 관여하는 수업의 주체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와 동료교사로 확장되었다. 수업의 가장 중요한 주체인 교사와 학생 사이에는 상호작용의 양상이 대면 수업과는 다르게 전개됨으로써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교사의 새로운 고민이 시작되었고, 다른 학생의 관여없이 교사와 학생 간 1:1 피드백, 의사소통이 가능해짐으로써 개별화된 수업이 가능하였으며, 비대면 수업 진행에 대해 학생들에게 자주 의견을 묻고 이를 적극적으로 수렴하고자 하였다. 교사들은 초등학생의 수업에서 숨겨진 참여자로 기능하는 학부모의 역할을 보다 강하게 인식하였으며, 동료 교사들과는 익숙하지 않은 비대면 수업의 진행을 위하여 전체 교과를 분배하여 녹화 영상을 제작하는 등 독립적이기보다는 수업을 위한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어 협력적으로 행동하였다.

비대면 수업의 세번째 의미는 ‘대면 수업과의 역할 분담으로 보완해 나가야 하는 과정’이다.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상황 속에서 갑작스럽게 도입된 비대면 수업은 1년 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학교 현장에 정착해왔다. 비대면 수업은 학교와 교실이라는 공간과 교수와 학습이 이루어지는 시간 사이에 간격을 벌이면서 교육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일으켰다. 그러나 초등학교 교사들은 비대면 수업에서의 제한적인 상호작용, 교사와 학생의 직접 접촉으로만 알 수 있는 학생의 다양한 정보 수집과 전인교육의 기회가 줄어들어 따른 아쉬움을 내비쳤다. 이와 동시에 비대면 수업이 가지는 장점을 언급하며,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이중 구조를 통해 장단점을 보완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즉, 초등학교 교사들에게 비대면 수업은 대면 수업과 함께 만들어가는 공존의 구조 속에 존재하는 것으로 지금의 비대면 수업은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이 각각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한 과정, 대면 수업과의 상호 보완의 가능성을 탐색해 나가는 과정으로서의 진행형의 의미를 가졌다.

2. 시사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초등학교 교사에게 코로나 상황 속에서의 수업이 ‘시공간의 물리적 경계를 초

월하게 하는 도전'이고, '교사-학생-학부모-동료교사가 함께 형성하는 협업'이며, '대면 수업과의 역할 분담으로 보완해 나가야 하는 과정'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비대면 수업의 의미를 통해 우리는 어떠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까?

첫째, 초등학교 교사들이 코로나19 시대의 수업 경험에 대해 '도전'임과 동시에 대면과 비대면 수업의 역할 분담을 통한 '과정'이라는 의미를 부여한 본 연구의 결과는 현직 교사의 비대면 수업 역량 개발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을 나타낸다. 현재의 비대면 수업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필수불가결의 선택지로서 갑작스럽게 전 학교급에 도입되었으나, 활동 중심의 수업이 이루어지는 초등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은 비대면 수업의 실시로 인한 수업의 질적 저하를 줄이기 위해 비대면 온라인 수업에 적합하도록 수업을 재구성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사들은 동료 교사와 논의하고, 관련 서적을 구입해 공부하고,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연수를 들으며 관련 역량을 개발하고 위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그러나 교육계 전반에서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비대면 수업 진행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현재 교사들이 산발적으로 경험한 역량 개발 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비대면 수업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원 연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기존 교실 수업과는 다른 비대면 온라인 수업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비대면 수업의 설계 및 진행을 위한 실제적인 역량 함양에 초점을 맞춰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정한호, 노석준, 정종원, 조영환, 2020).

둘째, 개별 교사들이 필요에 따라 도움을 주고받았던 모임을 공식적인 교사 공동체로 활성화하고, 일상적으로 교사들이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다. 교사협력이 교사들의 학습자 중심의 혁신적 교수활동을 꾀하고 이를 실행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구하라, 홍지인, 2018; 박주형, 신혜숙, 2020) 교사 공동체 활동을 통한 교사협력은 비대면 온라인 수업 상황에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의미있는 학습활동을 구현하기 위한 수업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교사 공동체를 통한 교사 간 협력을 증진시킴으로써 비대면 뿐만 아니라 대면 수업의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교사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안혜정, 이현정, 2018). 교육부에서 계획하여 제공하는 교사 연수 프로그램도 지속되어야 할 것이지만, 학교 내 동료교사, 지역 내 타 학교 교사들과의 교류 확산 등 시스템적으로 협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온라인 개학 초기에 교육부가 운영한 원격지원 자원봉사단 '교사 온'(교육부, 2020a)이나 17개 시도 학교별 대표 교사, 교육부, 시도교육청, 관계 기관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1만 커뮤니티'(교육부, 2020b)를 발판 삼아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추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비대면 수업시 학부모 역할로 인한 학력 격차를 줄이기 위한 지원체계의 필요성이다. 이 연구에서 분석한 결과, 비대면 수업은 교사와 학생, 학부모, 동료 교사와의 '협업'으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었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비대면 수업의 원활한 참여를 위해서는 학습 과정을 지원해주는 학부모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모든 학생에게 그들의 비대면 수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학부모가 있는 것은 아니며, 학부모가 학생 옆에 상시 대기할 수도 없다. 이와 같이 학부모가 온전히 지원해주기 어려운 경우 발생 가능한 비대면 수업에서의 학생 간 학력 격차를 줄이기 위해 개별 학생 간 학부모 지원의 차이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학교 내 학부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멘토를 지정하여 지원하거나, 교육부 또는 교육청 차원에서 보조 교사와 같은 인력을 지원하여 학부모의 부재를 보완해 주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학부모와 교사의 학업적 지원이 자기조절효능감에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는 온라인 수업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한영지, 이민혜, 2021) 학부모 지원의 역할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의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제한적인 대면 수업의 실시로 인해 기존에 학교에서 제공하던 돌봄과 보살핌, 전인적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현 상황에서 초등학교들이 겪는 심리·정서적 측면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학생 관리 체계의 개선 및 강화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한혜원, 이정민, 2021).

이 연구는 초등학교 교사들이 경험한 비대면 수업을 단순히 서술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사들의 경험을 심층 분석하여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 속에 도입된 비대면 수업의 의미를 교사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는 데 그 의의를 가진다. 또한 코로나19의 종식 이후에도 4차

산업 혁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한국 사회를 고려할 때, 비대면 수업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 시사점을 제시한 것은 상당한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으며, 이를 서술하여 후속 연구에의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이 연구는 5명의 교사와의 심층 면담을 분석한 연구로, 교사들의 비대면 수업을 직접 관찰하고 수업의 내용을 분석하지는 않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교사들이 부여한 수업의 의미를 찾는 것이기에 이와 관련한 심층 면담으로 충분히 분석이 가능하였으나, 실제 비대면 수업의 양상을 관찰하는 것은 비대면 수업의 논의를 풍부히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이 연구는 연구참여자 5인의 ‘비대면 수업의 경험’이라는 공통의 현상에 초점을 두고 분석한 현상학 연구이다. 그러나 비대면 수업을 수행한 맥락, 즉 교사 개인의 역량이나 지역별, 학교별 상황이 상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고려한 비대면 수업 경험을 분석하는 것은 보다 심층적인 현상의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이 연구에서는 비대면 수업의 의미를 교사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이로 부터 현직 교사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체계화, 교사 공동체를 통한 교사협력, 학부모 역할을 지원해줄 시스템 마련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안하는 데에는 이르지 못한 점은 아쉽다 할 것이다. 비대면 수업과 관련된 후속 연구를 통해, 이 연구에서 제기한 논의들을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

요약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교사들은 온라인 네트워크를 활용한 비대면 개학이라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수업의 주체인 교사가 수업을 어떻게 경험하는지 비대면 수업을 중심으로 하여 질적으로 탐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수도권 지역 초등학교 교사 5명과의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고, 전사한 면담 내용을 현상학적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비대면 수업의 의미를 8개의 하위 범주, 3개의 상위 범주의 구조로 구성하였다. 초등학교 교사들이 코로나 상황 속 경험한 비대면 수업은 (1) ‘시공간의 물리적 경계를 초월하게 하는 도전’이었고, (2) ‘교사-학생-학부모-동료교사가 함께 형성하는 협업’이었으며, (3) ‘대면 수업과의 역할분담으로 보완해 나

가야 하는 과정’을 의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비대면 수업을 위한 현직교사 역량강화 방안 및 교사 공동체를 통한 교사협력을 제시하였고, 학부모 역할을 보완해 줄 지원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주제어: 코로나19, 초등학교, 비대면 수업, 현상학

참고문헌

- 교육부 (2020a). 처음으로 초·중·고·특 신학기 온라인 개학 실시. 교육부 보도자료(2020.03.31.).
- 교육부 (2020b). 첫 온라인 개학, 교사의 힘으로 만드는 새로운 도전, ‘1만 커뮤니티’로 전국 학교의 집단 지성 발휘. 교육부 보도자료(2020.04.06.).
- 교육부 (2020c). 유·초·중·고·특수학교 등교수업 방안 발표. 교육부 보도자료(2020.05.04.).
- 구하라, 홍지인 (2018). 교사협력과 공식적 교사학습이 학습자 중심 교수활동 실천에 미치는 영향. **교사교육연구**, 57(4), 563-576.
- 김경태 (2020). ADDIE모형을 활용한 종묘제례악 원격수업도구 개발. **음악교육공학**, 44, 63-85.
- 김대용, 최진혁 (2020). 코로나-19로 인한 특수교육 온라인 학습 실태 및 온라인 학습 인식 조사. **특수교육학연구**, 55(2), 85-108.
- 김민정, 김희영, 김남연, 문가영 (2020). 유아 대상 원격교육에 대한 유치원 교사의 인식 탐색. **한국유아교육연구**, 22(3), 201-229.
- 김선영 (2020). 시뮬라크르 개념을 활용한 쌍방향 원격수목화 실기 강의 방안에 관한 연구. **조형교육**, 75, 91-109.
- 김세기 (2020). 코로나19로 인한 초등학교 체육교과 원격수업 실태 분석. **한국초등체육학회지**, 26(2), 145-158.
- 김현주 (2020). 외국인 학부생의 비대면 한국어 수업 경험에 대한 탐색: 줌(Zoom)을 활용한 실시간 온라인 수업을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11(4), 1679-1692.
- 김혜선 (2020). 코로나19에 따른 초등 교사의 온라인 수업 경험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20), 613-639.
- 도재우, 김수진, 문제웅 (2020). 의미연결망 분석을 활용한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중·고등학교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 사례 분석. **질적탐구**, 6(3), 637-681.

- 박주형, 신혜숙 (2020). 교사협력이 혁신적 교수활동 실천에 미치는 영향: TALIS 2018 초등 데이터를 활용하여. **교육문화연구**, 26(5), 403-422.
- 신서영, 박창언 (2020). 기본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교사의 온라인 수업 경험 탐구. **내러티브와 교육연구**, 8(2), 147-167.
- 안혜정, 이현정 (2018). 교사자율성, 교사협력, 교사효능감이 수업혁신에 미치는 영향. **교육문제연구**, 31(3), 145-170.
- 양동석, 조건상, 유은혜 (2020). 코로나-19에 대처하는 초등학교 체육수업의 현실과 개선방안. **한국초등체육학회지**, 26(2), 131-144.
- 윤태성, 류수연, 임경원 (2020). 충남지역 특수학교 교사의 원격수업 운영 경험과 그 의미. **특수교육교과교육연구**, 13(3), 179-209.
- 이상민 (2020). 예비 초등교사 대상 온라인 미술교육 방안 연구. **한국초등교육**, 31(2), 181-204.
- 이의재, 제성준, 윤현수 (2020). 코로나19 팬데믹 (pandemic) 상황에서 고등학교 경력 체육 교사가 겪는 온라인 수업 실천의 어려움과 극복 전략 탐색.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14), 339-362.
- 이지혜 (2020). 비대면 교육에서의 실감형 콘텐츠 (AR,VR,360°) 활용현황 및 개선방향 -초등학교 교육 중심으로-.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26(3), 369-377.
- 이현수 (2020). 대학 원격수업에 대한 교수자와 학습자의 인식 - M 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학교수학회논문집**, 23(3), 377-395.
- 임은정, 권수미 (2020). 비대면 음악 온라인 원격 수업 실태 연구. **예술교육연구**, 18(3), 165-184.
- 장원형, 최민지, 홍훈기 (202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유행에 따른 대학교 비대면 실험수업 운영에 관한 사례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17), 937-966.
- 전세명 (2020). 초등체육전담교사의 온라인과 등교수업 적응에 대한 자문화기술지. **한국초등체육학회지**, 26(3), 29-42.
- 정숙경 (2000). 수업의 기초와 실제 탐구. 부산: 동아대학교 출판부.
- 정한호, 노석준, 정종원, 조영환 (2020). Covid-19 확산이 교육계에 주는 도전: 모두를 위한 질 높은 원격 수업. **교육공학연구**, 36(3), 645-669.
- 최예린 (2020). 코로나19에 대한 보육교사의 정서적 경험과 달라진 어린이집 일상에 관한 연구. **한국 유아교육연구**, 22(1), 253-279.
- 최형미, 이동국 (2020). COVID-19에 따른 중등 교사의 원격수업에 대한 경험 탐색.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16), 1047-1071.
- 한영지, 이민혜 (2021).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와 교사의 지원이 자기조절효능감을 매개로 온라인 수업 참여에 미치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35(1), 217-236.
- 한혜원, 이정민 (2021). 초등학교 전문상담교사가 인식한 코로나19에 따른 학생들의 어려움과 비대면 상담 장벽에 관한 탐색적 연구. **교사교육연구**, 60(1), 51-66.
- Creswell, J. W. (2010). **질적 연구방법론 - 다섯 가지 접근 - (제2판)** (조흥식, 정선옥, 김진숙, 권지성 역). 서울: 학지사. (원서출판 2007)
- Moustakas, C. (1994).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s*. Sage.
- Sünkel, W. (2005). **수업현상학** (권민철 역). 서울: 학지사. (원서출판 1996)
- van Manen, M. (1994). **체험연구 - 해석학적 현상학의 인간과학 연구방법론** (신경림, 안규남 역). 서울: 도서출판 동녘. (원서출판 1990)